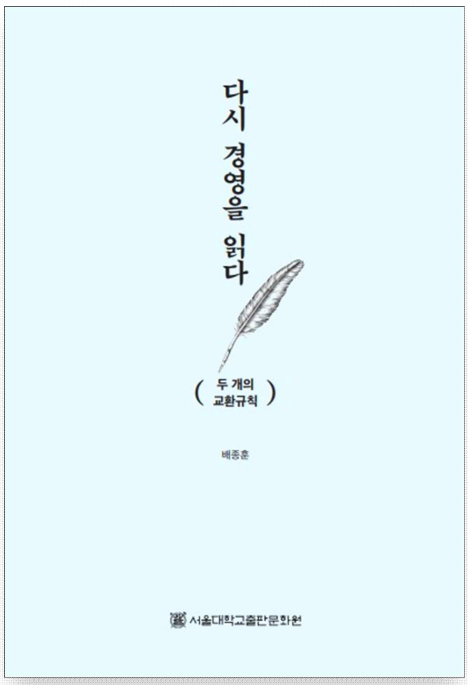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대표전화: 02-880-5252
편 집 팀: 02-880-5217~9
도서주문: 02-889-4424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신간 보도자료



다시 경영을 읽다
두 개의 교환규칙

배종훈 지음

판형 : 국판(148*210)
제책 : 무선
면수 : 160면
정가 : 23,000원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ISBN 978-89-521-3672-5 93320

자본주의적 생산은 시장규칙과 기업규칙이라는 두 바퀴로 돌아간다.

우리 사회에서 친시장 정책은 친기업 정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두 정책 모두 시장주의라는 단어로 간단히 축약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의 작동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시장과 기업의 작동이 분권주의 경제를 구현하는 상이한 방식을 보여 준다고 말하며, 경제 현상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바꾸어 낸다.

한편으로, 저자는 기성 경영경제 담론을 실천의 측면에서 분할하고 재구성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큰 틀을 이루는 시장규칙과 기업규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이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시장규칙과 기업규칙 모두 거래의 이익과 무관한 제삼자에 의해 개별 거래의 정당성과 규범적 효고가 유지됨을 강조함으로써 대안적 생산과 교환을 향한 가능성으로서 제삼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자 소개

배종훈

프랑스 인시아드(INSEAD)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틸뷔르흐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전략을 강의했고,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창업과 변화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혁신과 창업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 공저서로는 『창의적 사고와 삶』(2022), 『ESG 정치경제학: ESG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발전 방향』(2022), *Competitive strategy and challenge for the chaebol*(2018)이 있다.

차례

머리말

1장 분권화,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

2장 대립, 친시장 정책은 친기업 정책과 같지 않다
- 시장 규칙
- 기업 규칙
- 분권화
- 더 읽어 보기

3장 누락, 당사자는 제삼자의 오인이다
- 교환의 자격
- 이익의 경계와 생산의 경계
- 당사자주의와 분권주의의 한계
- 제삼자의 유형
- 계산하지 않는 제삼자
- 더 읽어 보기

4장 가치, 타자에게 인정한 삶의 방식
- 인정받는 것과 공감하는 것
- 두 가지 논쟁
- 더 읽어 보기

5장 상상의 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 실패의 실천
- 변화 관리
- 시장의 탄생
- 더 읽어 보기

감사의 글
참고문헌
Abstract